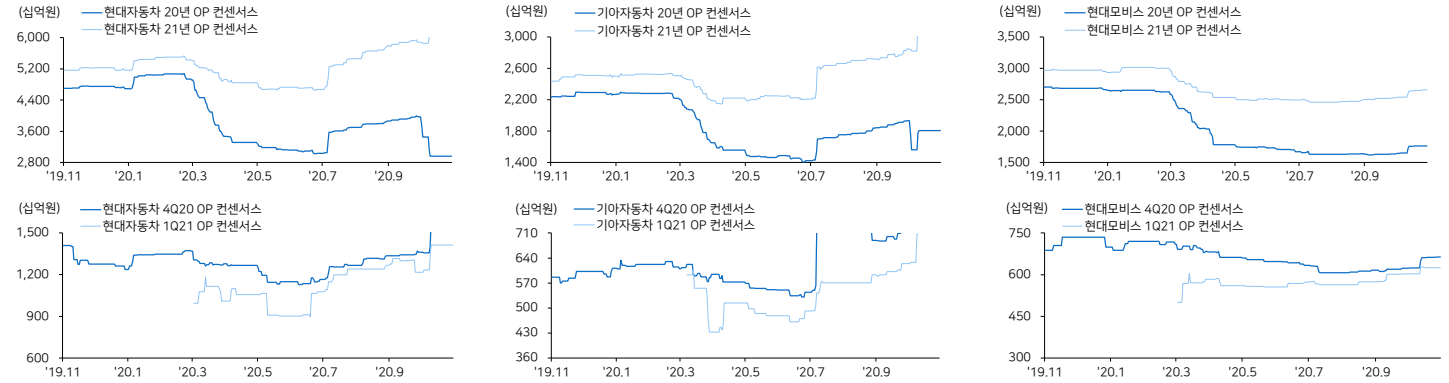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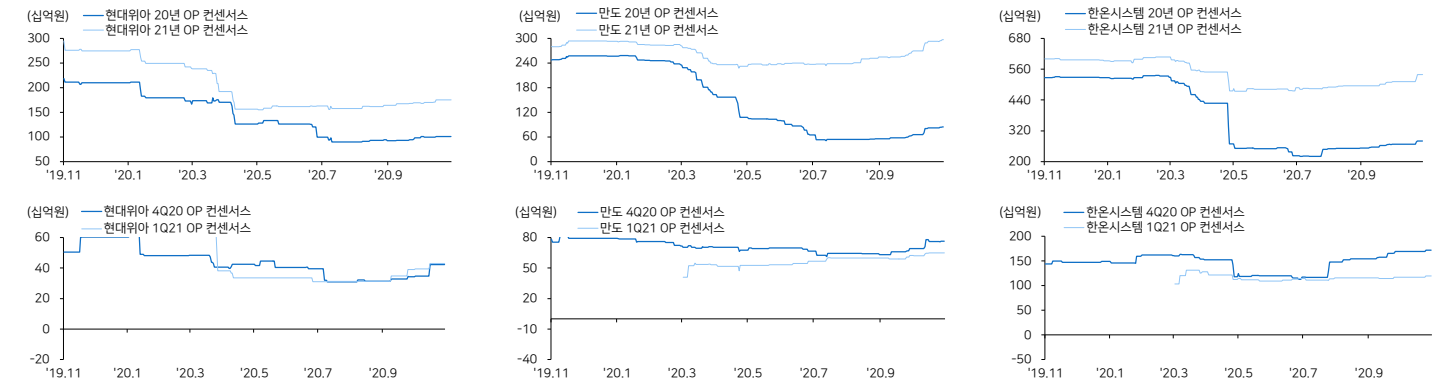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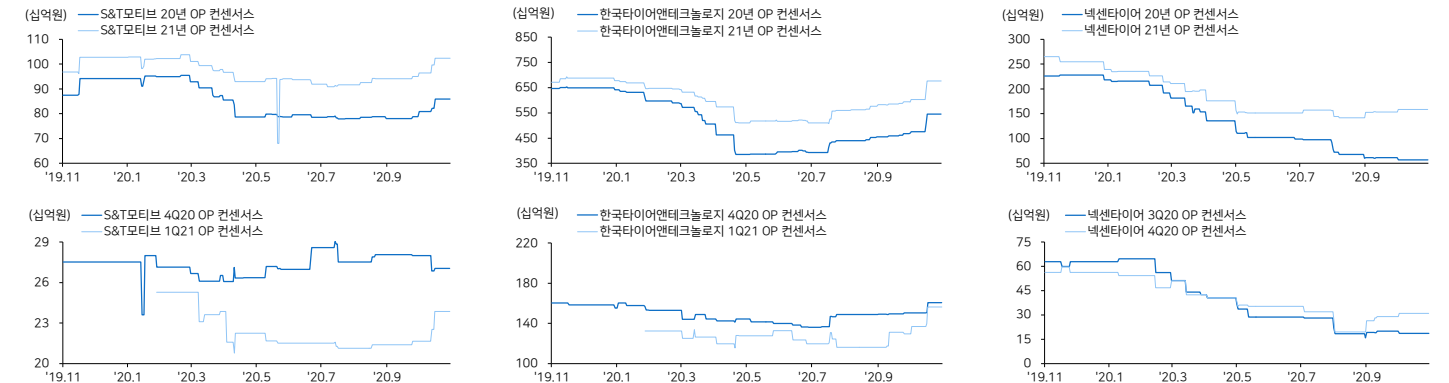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영업이익률 7% 달성 보인다, 이원희 미래차 투자기반 다져 (비즈니스포스트)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2022년 자동차부문 영업이익률 7%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수익성 확대는 미래차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의 기반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4848

내년 출시될 제네시스 신형 G90 예상도 (오토타임즈)

제네시스가 6년 만에 세대교체를 이룰 신형 G90(개발명 RS4)를 내년 하반기 선보일 예정. 17일 국산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정년퇴직 3년을 앞둔 만 57세(64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규모는 60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https://bit.ly/2LVLxVw>

현대모비스, 구조조정설 휩싸여...정회장 그룹운영 시급식될 듯 (한국연세뉴스)

현대모비스는 현대모비스의 연말 구조조정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정년퇴직 3년을 앞둔 만 57세(64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규모는 60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https://bit.ly/32QW9wE>

타이어 3사 상반기 부진인데 3분기 반등, 이유는? (조선비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상반기 실적 악화에 빠졌던 국내 타이어 3사의 3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됨. 국내·해외 공장들이 재가동에 들어가고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회복됐기 때문.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 아니므로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7/202011170044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브랜드 확산 나선다...친환경 콘셉트 전면에 (브릿지경제)

현대자동차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책임'이라는 콘셉트로 진행 중인 아이오닉(IONIQ) 브랜드 캠페인 'I'm in charge(아임 인 차지)' 메인 영상을 1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https://bit.ly/35FjCCz>

현대·기아차, 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금융상품 개발 협력 (전자신문)

현대·기아차가 공공기관, 금융사와 손잡고 교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 현대·기아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커머셜, KB손해보험과 '교통 빅데이터 연계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https://bit.ly/32PTYZV>

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근무장 폐쇄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건물이 폐쇄됨. 현대차는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실례 1등을 폐쇄하고 '정밀 방역'을 실시. 남양연구소는 건물들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 나머지 건물의 직원들은 정상근무 중. <https://bit.ly/3pA0aIc>

자동차업계, RCEP 서명 환영...'수출액'도 확대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최종 서명할 때 대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화물자동차 관세가 30~40%, 자동차 부품 관세가 10~40% 인하될 것으로 기대. <https://bit.ly/3pB07B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 아니므로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